

낙선재본 〈재생연전〉 연구

—번역양상을 중심으로—

정 병 설

1. 머리말

樂善齋本 小說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관심은 그것의 國籍과 관련되어 있다. 즉 그것은 낙선재본 소설이 중국 소설의 번역인가 아니면 국내에서 창작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먼저 이 때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번역 소설로 처리했거나 아니면 우리 소설로 보고 연구해온 낙선재본 소설 〈再生緣傳〉이 중국 彈詞의 번역이라는 점을 밝히고 〈재생연전〉의 원본과 〈재생연전〉을 비교함으로써 번역의 양상을 살핀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생연전〉의 국적을 확인하고 번역의 양상을 고찰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조선후기소설의 연구에서 문제가 되면서도 자료가 없어서 추론에 그치고마는 연작형소설의 제작 과정과 작가의 문제 그리고 여성작가의 문제에 대한 중국 쪽의 사정을 〈再生緣〉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 〈재생연전〉은 낙선재본 소설을 가리키며, 〈재생연〉은 중국 彈詞를 가리킨다.) 물론 이들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실상이 곧바로 조선후기소설의 실상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쪽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적 여건에서는 중국의 상황이 추론을 조금은 뒷받침하리라고 믿는다.

2. 〈再生緣傳〉의 國籍

〈재생연전〉은 조희웅이 처음으로 번역 소설로 보았고¹⁾, 장효현도 번역 소설 항목에 넣었다.²⁾ 그런데 이 두 편의 논문은 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재생연전〉을 다른 다른 책과 논문은 〈재생연전〉을 아예 우리 소설로 취급하고 있다.³⁾ 그러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생연전〉의 국적을 확인하고자 한다.

〈재생연전〉이 중국 彈詞의 번역이라는 것은 〈재생연전〉과 〈재생연〉의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을 비교해도 쉽게 드러난다.⁴⁾ 앞의 이름은 〈재생연전〉에서 보이는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이며, 뒤의 이름은 〈재생연〉의 등장인물의 이름이다.

여주인공 : 맹여군(여군옥)——孟麗君(鄭君玉)

남주인공 : 황보소화——皇甫少華

악역 : 유규벽——劉奎璧

여주인공의 아버지 : 맹사원——孟士元

남주인공의 아버지 : 황보경——皇甫敬

악역의 아버지 : 유첩——劉捷

남주인공의 소설 1 : 소영설——蘇映雪

남주인공의 소설 2 : 유연옥——劉燕玉

(여주인공의 괄호 속에 든 이름은 여주인공이 남장하고 행세할 때 사용한 이름이다.)

이 정도로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만 비교해도 〈재생연전〉이 〈재생연〉

- 1)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 서설, 「한양어문」, 1,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4. 12, 43쪽.
- 2) 장효현, 낙선재본 소설의 서지 및 연구, 「정신문화연구」, 14권 3호(통권 4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25쪽.
- 3) 정병욱, 낙선재문고 해제 및 목록, 「국어국문학」, 44·45합병호, 1969.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신재홍, 재생연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완암 김진세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집문당, 1990. (이하에 나오는 신재홍의 글은 모두 이 글을 가리킨다. 신재홍의 글은 이 글을 쓰는 데 큰 자극과 지침이 되었다.)
- 4) 이 글에서 사용되는 〈再生緣〉은 〈再生緣傳全〉(商務印書館)이다.

의 번역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재생연>에 대한 譚正璧의 줄거리 소개와 <재생연진>에 대한 신재홍의 자세한 권 별 줄거리 소개를 비교해보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⁵⁾ 여기서는 譚正璧의 <재생연> 줄거리를 옮겨 놓는다. 이것을 신재홍이 정리한 <재생연진>의 줄거리와 비교해보면 <재생연진>과 <재생연>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재생연>의 시대적 배경은 元代이다. 雲南 땅의 孟士元에게는 麗君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맑고 총명하며, 乳母 蘇大娘의 딸 映雪과 閩中에 함께 살았는데 서로 매우 친했다. 마침 都督 皇甫敬의 아들 少華와 장군 劉捷의 아들 奎璧이 동시에 사람을 보내 求婚하므로, 士元이 결정하기가 어려워 두 사람에게 무예를 겨루게 해서 이긴 사람을 사위로 선택하고자 했다. 이 시험에서 奎璧이 졌는데, 이에 奎璧은 少華를 쫓하고자 했다. 그런데 마침 奎璧의 여동생 燕玉이 少華를 구하는 바람에 이 일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 때 요동 원수 鄒必凱가 침략해서 나라가 위급하게 되었다. 劉捷은 기회를 잡고 皇甫敬을 장수로 추천했다. 敬은 衛換과 더불어 선봉이 되었는데 사로 잡히고 말았다. 이에 捷은 敬이 오랑캐에게 투항했다고 거짓으로 고한다. 이 말에 조정은 진노하여 皇甫 집안을 다 잡아들이라고 命한다. 少華는 이를 먼저 알고 도망치는데, 도망치다가 熊浩를 만나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 道를 배운다. 少華의 누이 長華와 어머니는 잡혀서 서울로 압송되어 가다가 도적을 만나는데, 도적의 우두머리는 衛換의 딸 勇娥이다. 勇娥는 男裝을 한 것이며 少華의 어머니 尹부인을 어머니로 長華를 누이로 대한다.

奎璧은 皇甫 집안의 몰락을 보고는 元帝의 皇后인 자신의 누이에게 말해서 麗君에게 賜婚을 命할 것을 請했다. 이에 황제가 그것을 허락했다. 麗君은 奎璧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映雪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게 하고 자신은 종과 더불어 男裝을 하고는 도망쳤다. 映雪

5) 譚正璧, 中國女性文學史話, 百花文藝出版社, 1984 (초고는 1930년에 완성), 396-397쪽. (이하에서의 譚正璧의 인용은 따로 면수를 밝히지 않는다. 인용은 모두 이 책 388-405쪽 사이에 있다.) 신재홍의 줄거리는 분량이 길어서 여기서는 인용하지 않는다.

역시 달갑지는 않았으나 거절이 어려워 皇甫 집안을 위하여 원수를 잡겠다고 다짐했다. 결혼한 날 밤 映雪은 칼을 품고 들어가 奎璧의 이마를 찌르고는 즉시 昆明湖에 몸을 던졌다. 증도에 梁監에게 구한 바 되었는데, 監은 映雪을 말로 삼았다. 監은 나중에 승상이 된다.

麗君은 나간 다음 성명을 바꿔 麗君玉이 (字는 明堂) 되었는데, 도중에 부유한 상인 康若仁을 만나 그의 아들이 된다. 麗君玉은 나중에 서울에 들어와 과거를 쳐서 장원을 하는데, 시험관 梁監이 그를 사위로 삼는다. 映雪도 결혼을 원치 않았는데 근에 神人이 결혼하라고 깨우쳐 주는 바람에 결혼을 한다. 君玉은 과거를 주관하게 되는데 少華와 熊浩가 이름을 바꾸어 응시해서 장원급제한다.

이 때 奎璧은 衛勇娥를 토벌하러 갔다가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고, 燕玉은 崔板鳳과의 혼인을 거절하고 절로 도망가니, 劉氏도 역시 점점 실세한다.

少華는 勇娥를 招撫하여 함께 鄒必凱를 정벌하여 국난을 평정하게 할 것을 진정한다. 이 때 少華는 征東大元帥가 되고 熊浩 등은 장군이 되어 바다를 건너 출정한다. 나중에 오랑캐는 평정되고 鄒必凱는 피살된다. 또 劉捷이 적과 내통한 서신도 얻는다. 少華는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온 집안이 몰락한 것과 劉捷이 적과 내통한 일을 일일이 奏達한다. 元帝는 大怒하여 劉氏 집안 모두를 옥에 가두게 하고 少華를 忠孝王으로 浩를 武憲王으로 삼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상급을 나누어준다.

이어서 燕玉은 돈을 모아 아버지를 구하러 서울에 온다. 忠孝王은 燕玉이 옛날에 자신을 구해준 은혜와 燕玉과의 혼약을 생각하고는 劉氏 全家를 特赦하기를 진정한다. 그래서 奎璧만 벌을 받는다. 燕玉이 皇甫 집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少華는 아직 麗君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麗君을 얻지 못하면 먼저 燕玉과 한 방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때 麗君玉은 少華가 한결같은 마음을 보이지 않고 서둘러 劉氏의 황급함을 돕는 것을 험하여 바로 진상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元帝도 君玉의 男裝을 알아차리고 妃로 맞고자 했다. 이 때 이미 長華가 皇后가 되어 있었고 少華를 위하여 君玉의 비밀을 험써 밝힌다. 그 사이에 일찍이 두 여자가 麗君으로 꾸며서 麗君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울에 와서 麗君을 사칭했는데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만다. 마지막으로 君玉은 스스로를 밝히는데 元帝가 대로하여 임금을 속였다는 죄로 斬首하려고 한다. 다행히 太后가 特赦를 내려 벌을 면한 君玉은 麗君이 되어 少華와 결혼한다. 映雪도 皇甫집안으로 들어간다.

이 줄거리는 거의 천 페이지에 달하는 소설을 한 페이지도 못되는 분량에 실어 놓은 것이니만큼 이를 통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생연전>이 번역임을 확인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 줄거리와 신재홍이 정리한 <재생연전>의 줄거리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遼東元帥 鄒必凱가 高麗의 장수로 나온다는지, 映雪이 투신 자살한 昆明湖가 곧명지로 나오고, 映雪을 구한 사람이 梁監이 아니라 양감의 부인으로 나오며, 麗君을 아들로 삼은 사람이 康若仁이 아니라 강신인으로 나오는 것과 熊浩가 武憲王이 된 것이 아니라 皇甫敬이 武憲王으로 나오는 것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이름의 차이일 뿐이며 인물의 기능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담정벽이 읽은 <재생연>과 신재홍이 읽은 <재생연전>에 결정적인 차이는 없다 할 지라도, 부분적인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인가 알 필요가 있다. 줄거리 정리의 과정에서 생긴 차이인지, 번역의 과정에서 나온 차이인지, 아니면 담정벽이 읽은 <재생연>과 <재생연전>의 원본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차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글쓴이의 능력의 한계로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 장에서는 정리된 <재생연>의 서지적 사항을 소개하고 입수한 한 판본으로 번역의 양상을 서술하는 데 그칠 뿐이다.

3. <재생연>의 이본과 번역의 양상

3.1. <재생연>의 이본

우선 재생연의 이본 상황을 가장 자세히 알려 주는 <彈詞寶卷書目>의 재생연 항목을 그대로 인용한다.⁶⁾

6) 胡士盤 編, 彈詞寶卷書目(增訂本), 上海古籍出版社, 1983(初版은 1957), 31-32쪽.

「재생연」陳端生女士著

清道光二年(1822)寶仁堂刊本。(孔)

清道光三十年(1850)三益堂刊本,四十冊。(鄭.胡)

清同治丹桂堂刊本.

清光緒辛卯(1891)學庫山房刊本,二十冊。(胡)

舊抄本,二十冊。(鄭)

普新書局石印本,二十冊。(鄭)

錦章圖書局石印本(凌)

(괄호 속에 든 한자는 소장처 또는 소장자를 가리킨다. 孔은 孔德學校圖書館, 鄭은 鄭振鐸, 凌은 凌景挺, 胡는 胡士瑩이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재생연〉은 寶卷으로도 나타난다.

「재생연 보권」惜陰書局石印本

이 책에서 정리된 〈재생연〉의 이본은 전국적인 자료수집 작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중국문학연구 초기의 몇몇 개인 소장자와 도서관에 의지한 것이어서 그 외에도 수많은 이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關德振은 胡士瑩의 작업에 하나의 이본을 더 추가하고 있으며(清道光三十年, 1850, 善成堂刊本, 二十卷, 四十冊)⁷⁾, 黃立振의 책에서는 劉崇義 校點의 〈재생연〉을 소개하면서 劉崇義가 5개의 판본을 비교하면서 校點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 모두는 위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판본이다.⁸⁾ 아래에 그 다섯 판본을 나열하겠다.

清道光元年(1821)寶寧堂刻本

清咸豐二年(1852)經畬堂重刊本

上海進步書局石印本

上海廣益書局石印本

趙景深家藏石印本

7) 關德振, 胡氏 編著 〈彈詞目〉 訂補, 『曲藝論集』, 上海古籍出版社, 1983(初版은 1958), 61쪽.

8) 黃立振 編著, 800種 古典文學 著作紹介 續篇, 中州古籍出版社, 1987, 517쪽. 劉崇義 校點의 〈재생연〉은 1981년에 中州書畫社에서 “中國古典講唱文學叢書” 가운데 하나로 출간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은 구하지 못했다.

<재생연>의 이런 출간 상황은 <재생연>의 인기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생연전>의 원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다만 <재생연전>은 이 글에서 자료로 삼고 있는 <재생연>과 부분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대강은 비슷하므로, 또 여러 중국 연구자가 구체적인 이본에 대한 언급없이 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생연> 이본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재생연>만을 가지고 도 어느 정도의 비교 연구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⁹⁾

3.2. 번역의 양상

여기서는 번역의 양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번역이 충실한 직역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대강의 줄거리만 전달하려고 했는가? 대강의 줄거리만 전달하려고 했다면 빠진 것은 무엇인가?

둘째, 대개 80회 20권으로 나뉜 <재생연>이 어떻게 52권 52책의 <재생연전>으로 分卷되었는가?

셋째, 신재홍이 <재생연전>을 우리 창작 소설로 본 증거로 이용된 자료들이 원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가?

3.2.1. <재생연전>은 <재생연>에 있는 등장 인물의 그림, 香葉閣主人의 序, 章回 目次는 물론이러니와 본문 중에서도 서두의 詩와 제작 상황을 서술한 부분은 빼고, 바로 “自古云 婚姻 五百年前定”부터를 “자고로 이르더 혼인은 오백년 전부터 덩하였다하니”로 번역하고 있다. 작품의 첫머리에 보이는 이런 번역의 양상은 <재생연전>이 원본에 충실한 번역을 해야겠다는 번역자의 태도에 의해 번역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번역자는 원본을 마음대로 생략하거나 축약하는데, 이는 대부분 이야기 전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제작 동기나 경위에 대한 서술이거나 묘사이다. 전자는 완전히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후자는 부분적으로 생략하거나 축약하는 것이 많다.

9) 이 글에서 자료로 사용하는 <재생연>은 80회 4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원본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출판 상황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지만, 서울대학교 도서관 구장 통양서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해방 이전의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묘사 부분을 축약해서 번역한 것의 예를 들겠다. 이 부분은 皇甫少華의 어머니 尹부인이 꿈을 꾸고는 長華와 少華를 잉태한 장면이다. <재생연>에는 尹부인이 잉태한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果然神佛多靈應 漸漸懷妊粗了肚
 面上桃花消一半 樽前玉食減分毫
 重身不比尋常婢 腹大腰粗立不牢
 都督亭山心喜悅(1회)

이것을 <재생연전>에서는 “과연 신불이 령응하신지라 점점 회태하여 허리굴그며 밥을 적게 먹거늘 도둑이 심중에 회열하여”로 번역하고 있다. 이런 축약은 <재생연>의 앞부분 4회를 비교 검토할 때 아주 흔히 보인다.¹⁰⁾

이보다 축약의 정도가 심해서 뚜렷한 생략으로 보이는 묘사도 나타난다. 다음은 尹부인이 낳은 長華와 少華를 묘사한 부분이다.

一雙孩兒貌端嚴 錦被遮身寶帶拴
 面似桃花初帶雨 眉如柳葉乍含煙
 雙垂玉耳天然美 一點硃脣分外鮮
 目若橫波眞不俗 鼻如懸膽果非凡
 繡衣斜掩遮香頰 翠袖輕籠露玉拳
 兩個嬌娃相彷彿 粉粧玉琢一般妍
 老爺看罷男和女 恰猶如
 兩粒明珠掌上懸 (1회)

<재생연전>에는 이 긴 묘사를 모두 생략하고 “일쌍희이 용되 모다 비범훈지라 낭기 명주물 장중의 회룡하는 듯하여”로 줄이고 있다. 이는 원본의 상세함에 비할 때는 엄청난 축약에 해당한다.

이런 축약과 생략은 ‘장황한’ 彈詞의 사건 전개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데, 이것이 사건이 빨리 전개되기를 바라는 독자나 번역자의 바람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번역자의 무능이나 게으름 또는 支離 煩

10) 이 글은 <재생연전>과 <재생연>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재생연> 1권(4회)과 선행 연구가 문제 삼았던 부분만 비교하는 데 그친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은 포괄하지 못한다.

鎖한 것을 줄이려는 번역 의도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3.2.2. 정신문화연구소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는 <재생연전>을 모두 복사하고 본문이 들어간 장 위에 각각 숫자를 매겨 보았다. <재생연전> 두 페이지가 한 장에 들어있는 셈이다. 그렇게 한 다음 <재생연> 매회의 끝이 어디 있는지 찾아 보았다. 1회의 끝은 <재생연전> 1권 32장에 있었고, 2회는 2권 61장에, 3회는 2권 94장에, 4회는 3권 130장에 있었다. 이로 볼 때 <재생연>의 한 회는 <재생연전>에서 30장 남짓한 분량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재생연>의 한 회는 商務印書館本으로 한 회당 11-12페이지의 분량으로 일정하게 나뉘어져 있다.) 그렇다면 다시 <재생연전>의 총 길이를 알 수 있다. 평균 32.5장인 한 회가 80회가 있는 셈이므로 총 길이는 2,600장이 된다. 그런데 이는 실제 <재생연전>의 두 페이지를 한 장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사실 5,200페이지가 되는 셈이다. 이는 <재생연전>의 총 길이를 5,600면 정도로 본 신재홍의 셈과 거의 일치한다. 이로써 우리는 <재생연전>의 번역자가 <재생연>의 근간이 되는 줄거리는 거의 빠뜨리지 않고 부분적인 축약과 생략만으로 한 회를 30장 남짓에다가 번역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재생연>의 회와 씬이 어떻게 <재생연전>의 권으로 나뉘고 있는지 보겠다. <재생연>의 한 회와 한 권이 다음 회나 다음 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재생연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며 <재생연전>에서 한 권이 넘어가는 부분이 <재생연>에서는 어떻게 썬여져 있는지를 살펴본다.

<재생연> 1회는 孟麗君을 아내로 맞아 들이기 위해서 皇甫少華와 劉奎璧이 활쏘기를 겨루러 孟士元의 집에 모이는 데에서 끝난다.

一衆丫環倚檻聽 (21자 생략) 且表尙書接兩豪 //

第二回 皇甫敬麟鳳雙生

話說 孟尙書 (이하 생략)

“모든 차완도 난간을 의지하여 다만 양위 꿈조를 청하여 드리물 기다려 모다 금포 아스를 보려 허더라 // 화설 땀공이” (//는 장회가 나뉘지는 곳을 표시한다)

1회의 경우는 어느 정도 원본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화설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재생연>의 단락 바뀔을 <재생연전>에서도 살려서 번역한 경우이다. 하지만 <재생연>의 장회 구분의 흔적이

〈재생연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2회의 끝과 3회의 시작이 그렇다. 2회는 劉奎璧이 皇甫長華에게 청혼하는 것을 皇甫敬이 거절하는 데서 끝난다.

如他見說心留意 豈肯相強再計較 總督暗思心已定 殷勤啓口道根苗〃

第三回 因踐夢求難許身

話說 皇甫敬

“계 비록 유의 하여도 잊지 억지로 구혼하리오〃하고 인하여 그 연유를”

2회에서는 보다시피 〈재생연〉의 한 회의 구분을 문장의 수준에서 조차 구획짓지 않고 있다. 이로 볼 때 번역자는 자의적으로 원본을 재단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3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4회의 끝은 1권의 끝이기도 하다. 〈재생연〉에서는 〈수호지〉 따위의 중국소설에서는 章回의 끝에 나타나는 ‘且聽下回分解’ 등의 독자를 끄는 말이 권말에 나타난다. 〈재생연〉 4회의 末에는 ‘不知後敘將何續 且看下回接前篇’이라는 말이 보인다.¹¹⁾ 그런데 이 말은 〈재생연전〉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과연 은인을 만나 소식을 통하물 무스리 도라 왔도다 하더라〃
차설 규벽이”

〈재생연전〉은 〈재생연〉의 4회 末에서 보이는 70자의 권말 정황 서술과 5회 초에 보이는 84자의 전편을 개괄하는 서술은 생략한 채 바로 원본에는 없는 ‘차설’을 사용해서 권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원본의 독자를 끄는 말이 생략되는 대신에 〈재생연전〉에는 〈쌍선기〉처럼 권말마다 ‘차칭(차간)하회 분해하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다. 〈재생연전〉은 권을 원본에 따라 나누었다기보다는 단순히 번역본의 한 권을 50장 분량으로 잡고 원본을 임의로 재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생연전〉의 한 권이 나뉘는 곳을 원본에서 찾아볼 때 원본에는 단락을 구획짓는 아무런 표지도 없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話頭辭의 경우, 〈재생연전〉은 〈재생연〉의 것을 대체로 그대로 사용하는데 바로 앞의 경우와 같이 화두사를 만들어 넣은 경우도 있지만 생략

11) 독자를 끄는 말은 8회 末에는 “要觀詳細下回提” 12회 末에는 “要聽奇文再續來” 16회 末에는 “再付五卷接佳音” 등으로 계속 바뀌며 나타난다.

이나 축약의 과정에서 화두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원본의 화두사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어 話說 却說 且說 등은 대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기지만 且表 再表 且淡 不談 등의 흔히 쓰이지 않는 화두사는 차설 재설 각설 등으로 번역해서 옮기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3.2.3. 신재홍은 <재생연전>을 우리 소설로 볼 수 있는 몇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생연전>이 번역 소설로 밝혀진 마당에 신재홍이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번역의 양상을 잘 드러내는 자료로 검증할 만하다.

<재생연전>에서 원나라를 침략하는 오랑캐는 고려로 설정되어 있는데, 신재홍은 <재생연전>이 고려에 대해 자부심과 온정과 배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재생연전>이 우리 소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우리의 속담이 <재생연전>에 있음을 발견하고 <재생연전>이 우리 소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굳혔다.

여기서는 고려에 대한 서술과 속담을 각각 두 개씩 뽑아서 원문과 대조해 보임으로써 번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황보경과 위환이 흥귀 드러오며 보티 던자 얹히 붕미선이 버릿고 주림 속의 어항이 가득하며 국왕이 농상의 단좌하시고 시네 금포를 닦고 반렬을 난호와 호위하시며 문무관원이 모다 시님 하엿시되 기상이 의의하시 대원의 사양치 아니하엿죽흔지라 (4권)

亭山衛煥齊齊進 只見番邦氣色高 寶殿開時宮扇動 珠簾垂處御香飄
國王端坐盤龍椅 番臣分班挂錦袍 文武官員侍左右 巍巍不讓大元朝 (6회)

과인은 원편조 못지 아나 범스의 모다 너그러이 더점하고 가비야은 죄는 다 스리지 아니리니 조고로 니르던 어두운 더물 바리고 밝은 더로 도라온다 하느니 오죽 원컨더 장군은 현리를 거스리지 말나 (4권)

朝鮮不似元天子 件件從寬治罪輕 汝若眞心降順我 後來有犯不生眞
投明棄暗從來語 惟願將軍勿逆人 (6회)

조고로 니르던 분명히 보는 창은 피하기 쉬워도 가마니 오는 살은 방비키 어렵다 하느니라 (3권)

明鎗易 從來說 暗箭難防自古云 (4회)

암동이 울면 지앙이 있다홍이 울토다 (49권)

批鷄司曉有災殃 (75회)

위의 네 가지 예문으로 볼 때 고려에 대한 작가의 시선과 속담의 차용은 원본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재생연>에 나오는 ‘조선’이 <재생연전>에서는 ‘고려’로 번역된 것은 원 세조 때가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때이므로 번역자가 ‘朝鮮’을 ‘고려’로 바꾸어 번역한 것으로 여겨진다.

4.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와 그 해결

신재홍은 <재생연전> 연구를 통해서 <재생연전>의 전편으로 <옥천연>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했고 또 작품을 분석해서 <재생연전>에 ‘여성 우위의 작가 의식’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이 두 문제를 하나하나 실증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4.1. 연작의 문제

<재생연전>에는 이것이 연작형 소설임을 알려주는 기사가 두 군데에서 보인다.

각설 옥천연 일길서중의 소옥휘 일인이 슈귀 되어시던 (1권)

옥천연을 이어 또 지성연을 괴록호노라 (52권)

이 기사를 통해서 선행 연구자는, <옥천연>이 고전소설목록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재생연전>이 이부작의 연작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실상은 삼부작의 연작이다. 연작형태는 <玉釧緣>—<再生緣>—<再造天>이다. <彈詞寶卷書目>에 나타난 이들 작품의 서지를 먼저 살펴 보겠다.

「玉釧緣」無著者姓名

清道光靜觀齋刊本, 48冊. (胡)

清道光二十二年 (1842) 文成堂刊本. (孔, 鄭)

翰苑閣刊本. (孔)

石印本, 24冊. (鄭)

此係「再生緣」前本

「再造天」侯香葉夫人著

清道光八年(1828)香葉閣刊本, 8册. (孔. 鄭)

清同治六年(1867)「再造天南音」十六回, 丹桂堂刊本. (胡)

清同治八年(1869)愛日堂刊本, 8册. (胡)

錦章書局石印本, 8册. (鄭)

此爲「再生緣」續集

그렇다면 이 연작이 누구에 의해 얼마만한 시차를 두고 제작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차례이다.

譚正璧은 <玉釧緣>을 淸初의 어떤 母女二人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보면서 范烟橋의 <中國小說史>에서 제작연대를 明末이라고 본 견해에 반론을 제기한다. 결국 두 사람의 견해를 아우른다면 17세기, 좀 정확하게는 17세기 중반 무렵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재생연의 창작 연대는 좀 더 복잡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 <재생연>의 작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또 전체적인 창작이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재생연>을 처음 창작한 사람은 陳端生이다. 陳端生은 1751년에 태어나서 1796년에 죽었으며¹²⁾, 23살(1773년)에 시집을 가고 30살(1780년)에 남편이 유배당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애에 대한 연대기적 이해는 창작 연대에 대한 논자들 사이의 견해가 다를 수 있게 보여준다. <재생연>에 대한 초기의 학문적인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 蔣瑞藻의 <小說考證>에서는 <재생연>을 陳端生이 남편이 유배간 다음 이를 슬퍼하여 지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¹³⁾ 그렇다면 창작 연대는 1780년 이후가 되는 셈이다. 창작연대에 대한 이 언급은 창작 동기와도 관련되는 것인데, 黃立振의 책에서는 陳端生이 여성이 압박받고 경시되는 소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孟麗君이라는 반역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彈詞를 18살(1768년)에 썼다고 한다. 이 견해는 구체적인 창작연대를

12) 黃立振, 앞의 책, 517쪽. 그러나 上海藝術研究所 中國戲劇家協會上海分會編, 中國戲曲曲藝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1, 729쪽에는 陳端生이 죽은 해를 “約 1790”으로 처리하고 있다.

13) 蔣瑞藻編, 江竹虛 標校, 小說考證 下, 上海古籍出版社, 1984년판, 396-397쪽.

제시하여 설득력을 더할 뿐만 아니라 창작 과정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어 믿을 만하다. 이 견해를 따라 창작 과정을 기술하면, 1771년까지 16권을 완성했고, 그 해 가을 어머니가 병으로 죽자 어머니를 여윈 슬픔 때문에 붓을 놓으며, 1787년에 다시 17권을 쓰기 시작하는데, 17권을 쓰고는 陳端生은 죽고 만다.¹⁴⁾ 未完의 이 탄사는 다시 두 번째 작가인 梁德繩이 이어서 비로소 완결짓는다. 譚正璧은 <재생연>의 창작연대를 대략 乾隆嘉慶兩朝(1736~1820년)로 보고 있지만 위의 견해를 토대로 창작연대를 좁히면 1768년에서 19세기 초에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생연>을 개작한 侯芝의 香葉閣刊本이 1820년에 출간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再造天>은 일명 <續再生緣>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侯芝가 <재생연>과 다른 탄사를 개작한 다음 썼다.¹⁵⁾ 그러므로 제작연대는 대략 1820년대라고 할 수 있다. 香葉閣刊本이 1828년에 나왔으니 그 이전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위에서 <재생연>은 <玉釧緣>이 나온 지 약 1세기가 지나서야 창작되었고 <再造天>은 <재생연>이 창작된 지 수십년이 지나서야 창작 출간되었음을 보았다. 또 <재생연>의 창작 과정을 통해서는 한 편의 長篇 彈詞가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시일이 걸린다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재생연> 연작은 한 사람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나중에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전체적으로 개정되었음을 알았다. 한 사람의 전체적인 개정이 연작 전체에 그의 자취를 남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속편에 대한 진술은 개정자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더욱 농

- 14) 譚正璧은 14권까지를 陳端生이 쓰고 나머지는 梁德繩이 쓴 것으로 보고 있다. 譚正璧은 <재생연>의 마지막 부분에 실린 진술을 토대로 이 둘 논증하고 있는데, 譚正璧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아무런 논증도 없이 모두 17권까지를 陳端生이 지었다고 보고 있다.
- 15) <再造天>이 侯芝의 創作인지 侯芝의 改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鄭振鐸처럼 侯芝의 改作이라고 보는 사람은 侯芝가 쓴 <재생연> 서문에 있는 “近改四種 錦上添花業已梓行”이라는 말에 의지하여 <再造天>이 다른 누구의 創作인데 侯芝가 改訂한 것으로 보고 있다. (鄭振鐸, 中國俗文學史, 臺灣商務印書館 7권, 1965, 376쪽.) 그러나 譚正璧은 이 밖에도 侯芝의 弟子인 宋淑吉이 쓴 <再造天>의 序文 (“侯香葉婦人手訂彈詞四種”)까지 인용하면서 <再造天>을 侯芝의 創作으로 보고 있다.

후하다. <玉釧緣>의 끝 부분에는 <재생연>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此皆後話 不必細表”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譚正璧은 侯芝가 修改할 때 집어넣은 것인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원본이 없어 감히 단정하지 못하겠노라고 한다. 하지만 譚正璧이 구태여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侯芝가 개정한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이며 이는 侯芝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더욱 농후함을 보여준다.

4.2. 작가의 문제

앞에서 이미 <재생연> 연작이 각각 다른 작가에 의해 씌여졌고 특히 <재생연>은 두 명의 작가에 의해 완성되었음을 알았다. 여기서는 각각의 작가의 삶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재생연> 연작은 대개 여성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여성 탄사 작가의 등장 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玉釧緣>의 작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譚正璧이 작품 내의 진술을 통해 淸初의 어떤 母女二人이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재생연>의 작가는 앞에서 밝힌대로 陳端生과 梁德繩 두 사람이다.

陳端生の 집안 식구 중에서 여러 연구서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다. 할아버지인 陳兆侖은 <續文獻通考> 纂修의 책임자였으며, 벼슬이 通政司副使에 이르렀고, 詩文이 淳古淡泊하여 京師士大夫들이 文章의 宗匠으로 떠받들 만큼 명망이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 陳玉教의 벼슬은 山東의 兗州와 雲南의 臨安府 同知에 이르렀다. 어머니 汪씨도 또한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었다. 陳端生 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동생인 長生도 詩에 능했다. 그래서 각각 <繪影閣集>, <繪聲閣集>이라는 시집을 남길 수 있었다.

梁德繩은 相國 文莊公의 손녀이며 冲泉 司空의 次女이다. 결코 가버이 볼 수 있는 집안의 자손은 아닌 셈이다. 여기에다 유명한 여류 통속 소설가 汪端의 이모이기도 하다. 언니가 汪氏 집안에 시집가서 일찍 죽고 汪端이 고아가 되자 汪端을 길렀다. 梁德繩은 汪端에게 시를 가르쳤는데 汪端의 後來의 성취는 사실 梁德繩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梁德繩의 남편인 許宗彥은 嘉慶年間(1796~1820년)에 벼슬에 나아가 兵部主事로 임명되었으나 두 달이 지나 벼슬을 물러나와 문을 닫고 책을 썼으

며 이상한 책을 즐겨 구입하고 더욱이 天文에 밝아서 일찌기 스스로 渾金球를 제작하였다. 蔣瑞藻는 許宗彥이 부인과 함께 <재생연>을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玉鈎緣>과 <재생연> 등을 改訂하고 <再造天>을 비롯한 몇편의 彈詞를 創作하여 序를 붙이고 刻印하기도 한 侯芝(約 1768~1830년)의 字는 香葉이고 號는 香葉閣, 香葉閣主人, 修月閣主人이다. 侯芝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시를 배웠다고 한다. 侯芝는 彈詞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는 잘 밝혀져 있지 않다. 通俗文學 가운데서 彈詞는 明代에 많이 나왔지만 著者가 無名이고 그것을 증시하는 사람이 적어서 거의 소멸해버렸다. 侯芝가 4종의 彈詞를 개정 또는 창작하여 자력으로 간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탄사소설의 지위가 높아졌고 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작가의 삶과 그 출신으로 볼 때 <재생연> 연작은 대체로 상층 士大夫家(陳端生, 梁德繩)의 어느 정도 문학 수업을 받은 여인들(陳端生, 梁德繩, 侯芝)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또 탄사 창작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가진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이는 侯芝가 4종의 탄사를 자기 집에서 출간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彈詞처럼 장편의 작품을 4종이나 출간한다는 것은 설사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작은 자본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재연생>은 彈詞말고도 通俗小說로도 씌여졌고 戲曲이나 話劇으로 바뀌어 공연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할 정도로 대중의 인기가 높다. (人民日報: 해외판 1991. 1. 10, 7면) 이는 <재생연>의 인기일 뿐만 아니라 彈詞 자체의 대중적인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한데 탄사의 인기에 대해서는 鄭振鐸이 잘 설명한다.

금일에 彈詞는 민간에서 접하는 세력이 아주 크다. 일반 부녀와 학식이 많지 않은 남자들은 秦皇과 漢武, 魏徵과 宋濂, 杜甫와 李白은 몰라도 方卿과 唐伯虎, 左饑貞과 孟麗君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彈詞 작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물은 이미 민간에서 아주 크고 심각한 인상과 영향을 남겼다.¹⁶⁾

16) 鄭振鐸, 앞의 책, 348쪽.

彈詞은 주로 여성이나 무식한 남성에게 의해 향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주도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무식한 남성에게 비해서는 중산 이상의 여성이 더욱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彈詞은 부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일이 없는 부녀들은 매번 彈詞을 읽거나 彈詞을 듣는 것으로 긴 낮과 긴 밤을 보내는 방법으로 삼았다. 一部 탄사의 講唱은 왕왕 모름지기 일개월에서 반년이 걸렸다. 그러므로 閨門 안에 갇혀 있는 中產 이상의 부녀들의 수요와 바로 맞아 떨어졌다. 부녀들은 이런 장편의 장황한 讀物이 필요했던 것이다.¹⁷⁾

그러나 여성들은 계속 彈詞의 독자나 청자에만 머무르지는 않았다.¹⁸⁾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여성은 스스로 필요한 彈詞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心懷, 困苦, 理想을 탄사 속에 집어 넣었다. 詩詞曲은 남성들의 노리개여서, 전통의 압박이 아주 강한 당시의 여성들이 그들의 재능과 이상을 그 속에 집어 넣기가 쉽지 않았지만, 탄사속에서는 여성들의 정서와 생각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연> 연작은 탄생되었던 것이다.

5. 맺 음 말

위에서 낙선재본 소설 <재생연전>이 중국 탄사 <재생연>을 번역한 것임을 밝혔으나, 어느 이본을 번역한 것인지는 알아내지 못하고, <재생연> 이본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번역의 양상을 살폈다. 번역은 제작동기나 경위를 서술한 부분이나 묘사 등을 축약하거나 생략하면서 이루어졌으며, 80회 20권의 <재생연>이 대개 분량에 의해 52권 52책의 <재생연전>으로 분권되었음을 부분적인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또 선행 연구자가 <재생연전>을 우리의 창작 소설로 본 근거가 되었던 부분이 <재생연>에는 어떻게 썩여져 있는지 살펴보았다.

17) 鄭振鐸, 위의 책, 353쪽.

18) 阿英, 小說二談, 上海古籍出版社, 1985(이 글은 1936년에 쓴 것임), 86쪽. 阿英은 여성들이 彈詞을 베끼기를 좋아하였으며 특히 베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큰 功德으로 여겼기에 彈詞의 刻印이 늦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 부분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임을 확인 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문제로 삼았던 작품 내에서 보이는 작품이 연작임을 알리는 진술과 <재생연전>에 보이는 ‘여성 우위의 작가 의식’의 문제를 <재생연>과 그 연구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다. <재생연>은 <육천연>—<재생연>—<재조천>의 삼부작 연작이고 이 연작은 동일한 한 작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품마다 다른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다. 심지어 한 작품을 둘 이상의 작가가 제작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연작이 모두 한 작가의 손에 의해 개정 혹은 창작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한 작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또 이 작가들은 더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층의 부녀라는 것도 확인했다.